

임상실습 전·후 간호 대학생들의 삶의 질에 영향 요인

김경아
해전대학교 간호학과

Factors Affecting the Quality of Life of Nursing Students before and after Clinical Practice

Kyeong-Ah Kim

Department of Nursing, Hyejeon College

요약 본 연구는 간호 대학생들의 임상실습 전·후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평가하고자 수행되었다. 자료는 H대학 및 G대학의 3,4학년에 재학 중인 간호 대학생들 256명으로부터 2018년 2월 19일에서 6월 29일까지 설문지를 통하여 수집하였다. 수집한 자료는 SPSS/WIN 18.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Paired t-test, ANOVA, Spearman rho Correlation, Kendall Correlation, Multiple Linear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임상실습 전·후의 간호 대학생들의 삶의 질에 유의한 설명력을 갖는 요인은 지원 동기($t=5.268, p<.001$), 성적($t=4.771, p<.001$), 우울($t=-4.600, p<.001$), 월 소득($t=3.383, p=.001$), 학과 만족도($t=3.344, p=.001$) 순이고, 이들 요인의 결정계수인 R^2 은 .685로 68.5%의 설명력을 보여주었다. 이는 적성이 맞아 간호학과를 선택하여 학과 만족도도 높고 성적도 일정하게 유지하며, 경제적인 어려움과 우울의 정도가 낮은 간호 대학생들의 삶의 질이 높다고 유추된다. 따라서 간호 대학생들의 지원동기와 월 소득은 통제할 수는 없으므로 통제 가능한 성적과 학과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우울을 감소시켜 임상실습 전·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valuate the factors affecting the quality of life before and after clinical practice for nursing students.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256 nursing students in the third and fourth years at H college and G University through a questionnaire from February 19 to June 29, 2018. The collected data were compiled using the SPSS/WIN 18.0 statistical program with Paired t-test, ANOVA, Spearman rho Correlation, Kendall Correlation, and Multiple Linear Regression. The factors that significantly explained the quality of life of nursing students before and after clinical practice were the reason for application ($t=5.268, p<.001$), school record ($t=4.771, p<.001$), depression ($t=-4.600, p<.001$), monthly income ($t=3.383, p=.001$), and satisfaction in nursing department ($t=3.344, p=.001$). The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for these factors, R^2 , showed an explanation force of 68.5%. These results also inferred that the quality of life of nursing college students is high, with high satisfaction in nursing departments and regular school record and low economic hardship and depression. Therefore, programs should be developed that can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nursing students before and after clinical practice by continued improvement in the controllable factors of school record and satisfaction in nursing departments and by reducing depression, since the reason for application and the monthly income of nursing students cannot be controlled.

Keywords : clinical practice, depression, nursing students, quality of life, stress, self-efficacy, self-esteem

본 논문은 해전대학교 연구과제로 수행되었음.

*Corresponding Author : Kyeong-Ah Kim(Hyejeon College)

Tel: +82-41-630-5367 email: kka-book@hj.ac.kr

Received October 8, 2018

Revised (1st November 5, 2018, 2nd November 9, 2018)

Accepted December 7, 2018

Published December 31, 2018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일반적으로 대학생들은 고등학교에서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긴장된 생활을 해 왔고, 대학생활로 사회적 전환 기일 뿐만 아니라 자아인식, 정체성 확립, 이성 교제, 인생의 가치관 설정 등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 [1]. 또한 대학생활 역시 대학생으로서의 적응, 선·후배 및 교수와의 관계, 학업, 취업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2]. 이와 같은 어려움에 더해 간호 대학생들은 타 학과에 비해 과중한 학업과 임상실습을 병행해야 하는 부담감과 국가고시라는 과정을 통과해야 하는 무게감을 더 느끼고 있다 [3, 4]. 간호 대학생들에게 임상실습은 필수적이지만 임상실습을 통해 간호사에 대한 실망, 이론과 실제의 차이, 간호사와 의사와의 대립, 교육과 비교육적 양상에 대한 혼돈, 한 가지 업무를 책임져야 하는 부담감과 단순한 업무 반복으로 인한 지루함, 학교와는 다른 실습 환경, 대인관계에서의 경험 부족, 전문지식의 부족 및 자신감 결여로 많은 갈등과 혼란을 겪게 된다 [5, 6].

이와 같이 간호 대학생은 임상실습이라는 것을 통해 불안과 긴장을 느끼게 하는 스트레스 상황을 경험하게 된다 [2]. 스트레스를 받는 개인은 대응하기 위해 정서적 고통과 삶의 환경을 변화시키고, 과제 및 학업성취도 저하되면서 삶의 질도 떨어진다 [1, 2]. 스트레스와 삶의 질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대학생들의 생활스트레스는 사회 심리적 가치관 수용, 학업문제, 대인관계, 진로 및 취업, 경제문제, 이성문제 등 매우 다양하였다 [7].

삶의 질(quality of life)이란 협의로는 개인의 주관적 안녕 감(well-being)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되며, 광의로는 객관적인 사회적 지표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8]. 삶의 질은 긍정 심리학에서는 환희, 기쁨, 만족을 나타내는 긍정적인 감정으로 표현되며, 노인 학자들은 기능적 능력과 행복, 고통, 에너지 수준, 개인적 통제, 자존감 등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또한 사회학자들과 경제학자들은 삶의 질의 ‘객관적’ 지표와 함께 ‘주관적’ 지표를 보완하기 위해 ‘사회지표운동’을 고안하였다 [9]. 따라서 개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요인 등으로 다양하다.

대학생의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영향하는 요인은 자

아 존중 감, 사회적 지지, 건강관리 역량, 건강증진 생활 양식으로 나타났고 [10], 대학생의 삶의 질을 높이는 요소로는 자기조절, 학업성취, 원만한 인간관계, 여가생활, 경제적 요인, 화목한 가정 순이었다 [8].

이렇게 일반 대학생들과 같이 간호 대학생들의 삶의 질도 암기학습, 수면과 휴식, 피로, 일상생활 활동, 업무 능력, 여가활동 참여와 경제적인 자원 등에 영향을 받는다 [4].

기존의 연구들에서 간호 대학생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연령, 경제상태, 건강상태, 대인관계, 스트레스, 임상실습 스트레스, 취업 스트레스, 생활 스트레스, 우울, 불안, 자기 존중 감, 자기 효능감 등이었다 [1, 2, 3, 4, 6, 7, 11, 12]. 그러나 간호 대학생들의 대학생활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임상실습과 연관해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총괄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선행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건강증진과 삶의 질의 영향을 조사한 연구 [3]와 임상실습 경험에 따른 간호대학생의 죽음에 대한 태도와 자아 존중 감, 삶의 만족도의 영향을 조사한 연구 [13]가 있었다. 이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한 요소로 연구되어졌고, 임상실습과 관련된 다양한 요소들이 간호 대학생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되지는 않았다. 따라서 간호 대학생들의 임상실습 전·후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비교 분석하여, 간호 대학생들에게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면서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간호 대학생들의 임상실습 전·후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고자 하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간호 대학생들의 일반적 특성과 임상실습 전·후의 삶의 질의 차이를 파악한다.
- 2) 간호 대학생들의 임상실습 전·후의 간호학과 만족도, 임상실습 만족도, 건강상태, 우울, 스트레스 정도, 임상실습 스트레스 정도, 자기 존중 감, 자기 효능감과 임상실습 전·후의 삶의 질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한다.
- 3) 간호 대학생들의 간호학과 만족도, 임상실습 만족

도, 건강상태, 우울, 스트레스 정도, 임상실습 스트레스 정도, 자기 존중 감, 자기 효능 감, 삶의 질이 임상실습 전·후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한다.

- 4) 간호 대학생들의 임상실습 전·후의 삶에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의 상관관계를 확인한다.
- 5) 간호 대학생들의 임상실습 전·후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확인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 대학생들의 임상실습 전·후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는 H대학 및 G대학의 3, 4학년에 재학 중이며 임상실습에 참여하고 있는 간호 대학생들 중,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참여를 희망한 간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대상자 수는 G power 3.1을 사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위해 유의수준 $\alpha=0.05$, 효과크기(effect size) 0.15, 검정력(power) 0.95로 선정하였을 때, 217명으로 산출되었다. 산출된 결과를 토대로 총 300명에게 구조화된 설문지를 직접 작성하도록 하였고, 불완전 응답을 한 44부를 제외하고, 256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응답 율은 85.3%이었다.

2.3 연구도구

본 연구 도구는 총 119문항으로, 일반적 특성 7문항, 간호학 전공 관련 특성 6문항, 삶의 질 26문항, 우울 20문항, 스트레스 정도 18문항, 임상실습 스트레스 정도 24문항, 자기 존중 감 10문항, 자기 효능 감 8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도구 작성 후 간호학 교수 2인에게 내용타당도를 검토하게 하였고,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계수로 구하였다.

2.3.1 삶의 질

본 연구에서 사용된 삶의 질 척도는 한국판 세계보건 기구 삶의 질 척도 단축 형(WHOQOL-BREF) [14] 으로 총 26문항의 5점 척도로 구성되었고, 점수가 높을수

록 삶의 질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명숙, 김금순, 조미경, 안정원, 김순오의 연구 [3] 에서 Cronbach's α 는 .750이었고, 박보영, 심옥수 [6] 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70이었다. 본 연구에서 임상실습 전 삶의 질의 Cronbach's α 는 .905였고, 임상실습 후 삶의 질의 Cronbach's α 는 .921이었다.

2.3.2 우울

본 연구에서 우울척도는 CED-D 20문항의 4점 척도를 사용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한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임상실습 전 우울의 Cronbach's α 는 .860이었고, 임상실습 후 우울의 Cronbach's α 는 .866이었다.

2.3.3 스트레스 정도

본 연구에서 스트레스 척도는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18문항의 4점 척도를 사용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치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임상실습 전 스트레스 정도의 Cronbach's α 는 .869였고, 임상실습 후 스트레스 정도의 Cronbach's α 는 .876이었다.

2.3.4 임상실습 스트레스 정도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임상실습 스트레스 척도는 김성미 [15] 의 24문항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실습 스트레스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며, Cronbach's α 는 .890이었다. 본 연구에서 임상실습 전 임상실습 스트레스 정도의 Cronbach's α 는 .927이었고, 임상실습 후 임상실습 스트레스 정도의 Cronbach's α 는 .917이었다.

2.3.5 자기 존중감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기 존중 감 척도는 Rogenberg [16] 의 10문항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 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개발 시 Cronbach's α 는 .85이었고, 본 연구에서 임상실습 전 자기 존중 감의 Cronbach's α 는 .893이었고, 임상실습 후 자기 존중 감의 Cronbach's α 는 .898이었다.

2.3.6 자기 효능감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기 효능 감 척도는 Chen [17] 의 8문항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 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임상실습 전 자기 효능 감의 Cronbach's α 는 .932였고, 임상실습 후 자기

효능 감의 Cronbach's α 는 .940이었다.

2.4 자료수집 방법 및 절차

본 연구의 자료 수집기간은 2018년 2월 19일부터 6월 29일까지 하였으며, 자료 수집은 연구자와 교육된 연구보조자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임상실습 전·후 1주일 이내의 대상자에게 설문지를 배부한 후 설명을 듣고 스스로 기록하게 하여 회수하였고, 설문지는 총 300명에게 배부하여, 불완전 응답을 한 44부를 제외하고, 256부를 회수하였으며, 응답 율은 85.3%이었다.

2.5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대상자의 윤리적 고려를 위해 연구에 대해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였고, 응답을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으며, 회수된 자료는 익명으로 처리됨을 알려 주었다. 설명한 후 자발적으로 참여의사를 보이는 학생만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서면으로 연구 참여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다.

2.6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8.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1) 간호 대학생들의 일반적인 특성은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 2) 간호 대학생들의 임상실습 전·후의 일반적 특성, 간호학과 만족도, 임상실습 만족도, 건강상태, 우울, 스트레스 정도, 임상실습 스트레스 정도, 자기 존중 감, 자기 효능 감, 삶의 질의 차이는 Paired T-Test 및 ANOVA로 분석하였다.
- 3) 간호 대학생들의 임상실습 전·후의 삶에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의 상관관계는 Spearman rho Correlation과 Kendall Correlation으로 분석하였다.
- 4) 간호 대학생들의 임상실습 전·후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파악하기 위해 Multiple Linear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 5) 설문지의 문항은 Cronbach's α 로 검증하였다.

3. 연구결과

3.1 간호 대학생들의 일반적 특성과 임상실습 전·후의 삶의 질의 차이

간호 대학생들의 일반적 특성으로 성별, 나이, 학년, 병역, 종교, 월 소득, 음주량, 지원 동기, 학업성적, 실습 주수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본 연구에 참여한 학생 256명 중 여학생이 218명(85.2%)으로 많았고, 연령 분포는 20~29세가 232명(90.6%)으로 가장 많았으며, 학년별 분포는 3학년이 134명(52.3%)으로 많았다. 간호 대학생들의 병역 의무는 군필자가 34명(89.5%)이었고, 종교를 안 가진 경우가 173명(67.6%)으로 가장 많았으며, 월 소득은 한 달에 201~300만원이 66명(28.2%)으로 많았고, 음주량은 술을 전혀 하지 않는 경우가 120명(47.4%)로 가장 많았다. 간호 대학생들의 학과 지원 동기는 '적성과 흥미가 맞아서'가 97명(37.9%), '부모님 혹은 교사의 권유로'가 50명(19.5%), '취업률이 높아서'가 46명(18.0%), '전문직이라서'가 38명(14.8%), '기타'가 18명(7.0%), '성적을 고려해서'가 7명(2.7%)이었다. 성적 분포는 '중위권(평균 B)'이 122명(48.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중하위권(평균 C)'가 많았다. 실습주수는 임상실습 전에는 '참여 안함'이 134명(52.3%)이었고, 임상실습 후에는 2~4주가 134명(52.3%)이었다 (Table 1).

간호 대학생들의 성별($t=4.008, p<.001$)과 학업 성적($F=2.733, p=.030$)이 임상실습 전·후의 삶의 질과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다(Table 1). 간호 대학생 중 여성보다 남성이 삶의 질이 높았고, 성적이 좋을수록 삶의 질이 높았다.

3.2 간호 대학생들의 임상실습 전·후의 간호학과 만족도, 임상실습 만족도, 건강상태, 우울, 스트레스 정도, 임상실습 스트레스 정도, 자기 존중감, 자기 효능감과 삶의 질의 차이

간호 대학생들의 임상실습 전·후의 간호학과 만족도, 임상실습 만족도, 건강상태, 우울, 스트레스 정도, 임상실습 스트레스 정도, 자기 존중 감, 자기 효능감과 삶의 질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다음과 같았다. 임상실습 전 학과 만족도($F=19.372, p<.001$), 임상실습 후 학과 만족도($F=15.710, p<.001$), 임상실습 전 임상실습 만족도($F=9.367, p<.001$), 임상실습 후 임상실습 만족도($F=9.395, p<.001$), 임상실습 전 건강상태($F=17.466, p<.001$), 임상실습 후 건강상태($F=23.070, p<.001$), 임상실습 전 우울($t=5.425, p<.001$), 임상실습 후 우울($t=4.792, p<.001$), 임상실습 전 스트레스 정도($t=9.288,$

$p<.001$), 임상실습 후 스트레스 정도($t=7.660, p<.001$), 임상실습 전 임상실습 스트레스 정도($t=1.631, p<.001$), 임상실습 후 임상실습 스트레스 정도($t=1.412, p=.040$), 임상실습 전 자기 존중 감($t=7.021, p<.001$), 임상실습 후 자기 존중 감($t=8.567, p<.001$), 임상실습 전 자기 효능 감($t=6.503, p<.001$), 임상실습 후 자기 효능 감($t=8.476, p<.001$)은 간호 대학생들의 삶의 질과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다(Table 2-1, 2-2).

Table 1. Difference in General Characteristics of Nursing Students and Quality of Life before and after Clinical Practice (n=256)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M±SD	t or F	p
Sex	Male	38	14.8	194.45±22.33	4.008	<.001**
	Female	218	85.2	177.52±24.78		
Age	≤ 19	-	-	-	0.720	.931
	20-29	232	90.6	180.05±24.75		
	30-39	16	6.3	178.81±29.16		
	≥ 40	8	3.1	182.88±13.75		
Grade	3th	134	52.3	180.90±22.41	0.558	.577
	4th	122	47.7	179.16±27.02		
Military Service	Fulfilled	34	89.5	194.74±24.50	0.613	.547
	Not yet completed	4	10.5	181.00±7.26		
	Exempted	-	-	-		
Religion	Not	173	67.6	179.99±25.21	0.460	.765
	Christianity	49	19.1	182.21±21.59		
	Buddhism	17	6.6	172.88±31.30		
	Roman Catholicism	13	5.1	182.15±20.50		
	The other	4	1.6	185.00±0		
Monthly Income	≤ 200	33	14.1	178.15±23.41	0.931	.446
	201-300	66	28.2	178.95±21.16		
	301-400	56	23.9	179.58±27.03		
	401-500	37	15.8	177.97±24.20		
	≥ 501	42	17.9	186.48±22.71		
Drinking	Not at all	120	47.4	177.80±26.89	0.737	.568
	1time/wks	103	40.7	181.38±23.37		
	2-3times/wks	26	10.3	185.69±20.31		
	Almost everyday	4	1.6	188.00±21.63		
Reason for Application	Considering grades	7	2.7	177.43±24.63	0.565	.727
	Through aptitude & interest	97	37.9	183.03±27.92		
	Recommendation of parents or teachers	50	19.5	179.26±23.94		
	The high employment rate	46	18.0	176.09±22.21		
	Because of Professional	38	14.8	178.47±19.33		
	The other	18	7.0	180.44±25.17		
School Record	Top(A+)	15	6.0	194.93±29.40	2.733	.030*
	Upper Middle(A)	35	13.9	183.34±26.68		
	Medium(B)	122	48.4	180.91±23.68		
	Low Middle(C)	69	27.4	174.51±23.16		
	Down(D)	11	4.4	172.46±23.97		
Pre-Number of Participating Weeks in Clinical Practice	Not participating	134	52.3	180.72±22.40	0.417	.741
	2-4weeks	2	0.9	194.50±14.85		
	6-8weeks	-	-	-		
	10-12weeks	33	12.9	177.11±25.86		
	≥ 14weeks	87	33.9	179.91±27.72		
Post-Number of Participating Weeks in Clinical Practice	Not participating	-	-	-	0.308	.735
	2-4weeks	134	52.3	180.57±22.49		
	6-8weeks	1	0.4	197.00±0		
	10-12weeks	-	-	-		
	≥ 14weeks	121	47.3	179.37±27.04		

* : $p<0.05$, ** : $p<0.01$

Table 2-1. Difference in Satisfaction of Nursing Department,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Overall Health of Nursing Students before and after Clinical Practice, and Quality of Life (n=256)

Characteristics	Categories	Quality of Life			
		Before Clinical Practice		After Clinical Practice	
		M±SD	F(p)	M±SD	F(p)
Satisfaction of Nursing Department	Complete dissatisfaction	-	19.372 ($<.001^{**}$)	185.00±0	15.710 ($<.001^{**}$)
	Dissatisfaction	160.20±17.31		163.36±22.25	
	General satisfaction	172.21±22.52		170.98±22.29	
	Satisfaction	187.28±22.06		183.59±20.84	
	Complete satisfaction	203.35±26.43		205.57±27.09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Complete dissatisfaction	-	9.367 ($<.001^{**}$)	185.00±0	9.395 ($<.001^{**}$)
	Dissatisfaction	162.91±29.02		167.47±20.84	
	General satisfaction	169.19±21.47		170.73±22.15	
	Satisfaction	187.74±26.35		185.48±24.20	
	Complete satisfaction	204.75±23.96		199.69±22.68	
Overall Health	Very unhealthy	169.00±0	17.466 ($<.001^{**}$)	-	23.070 ($<.001^{**}$)
	Unhealthy	166.81±26.29		167.05±28.26	
	Normal healthy	169.77±19.28		172.69±17.34	
	Healthy	184.40±21.27		185.71±21.38	
	Very healthy	198.34±25.00		202.68±26.80	

* : $p<0.05$, ** : $p<0.01$

Table 2-2. Difference in Depression, Stress Levels, Stress Levels during Clinical Practice, Self-esteem, Self-efficacy of Nursing Students before and after Clinical Practice, and Quality of Life (n=256)

Characteristics	Quality of Life			
	Before Clinical Practice		After Clinical Practice	
	M±SD	t(p)	M±SD	t(p)
Depression	179.92±24.65	5.425 ($<.001^{**}$)	180.06±24.71	4.792 ($<.001^{**}$)
Stress Levels	180.06±24.71	9.288 ($<.001^{**}$)	180.06±24.71	7.660 ($<.001^{**}$)
Stress Levels during Clinical Practice	180.06±24.71	1.631 ($<.001^{**}$)	180.06±24.71	1.412 (.040)
Self-esteem	180.06±24.71	7.021 ($<.001^{**}$)	179.99±24.73	8.567 ($<.001^{**}$)
Self-efficacy	180.06±24.71	6.503 ($<.001^{**}$)	180.06±24.71	8.476 ($<.001^{**}$)

* : $p<0.05$, ** : $p<0.01$

Table 3. Difference in Satisfaction of Nursing Department,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Overall Health, Depression, Stress Levels, Stress Levels during Clinical Practice, Self-esteem, Self-efficacy, and Quality of Life before and after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n=256)

Characteristics	Before Clinical Practice	After Clinical Practice	t	p
	M±SD	M±SD		
Satisfaction of Nursing Department	3.51±0.73	3.61±0.75	-2.591	.010*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3.48±0.75	3.68±0.63	-3.552	.001**
Overall Health	3.62±0.94	3.43±0.92	3.346	.001**
Depression	32.67±7.59	33.07±7.64	-0.961	.338
Stress Levels	35.57±7.17	37.94±7.33	-6.274	$<.001^{**}$
Stress Levels during Clinical Practice	63.17±15.07	60.50±14.63	3.158	.002**
Self-esteem	36.59±6.50	36.34±6.60	0.836	.404
Self-efficacy	28.99±5.41	28.48±5.57	1.836	.068
Quality of Life	91.71±12.72	88.35±13.76	5.578	$<.001^{**}$

* : $p<0.05$, ** : $p<0.01$

3.3 간호 대학생들의 임상실습 전·후의 간호학과 만족도, 임상실습 만족도, 건강상태, 우울, 스트레스 정도, 임상실습 스트레스 정도, 자기 존중감, 자기 효능감, 삶의 질의 차이

간호 대학생들의 임상실습 전·후의 간호학과 만족도, 임상실습 만족도, 건강상태, 우울, 스트레스 정도, 임상실습 스트레스 정도, 자기 존중 감, 자기 효능 감, 삶의 질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다음과 같았다. 간호 대학생들의 간호학과 만족도는 임상실습 후가 3.61±0.75로 유의하게 높았으며($t=-2.591, p=.010$), 임상실습 만족도도 임상실습 후가 3.68±0.63으로 유의하게 높았고($t=-3.552, p=.001$), 스트레스 정도도 임상실습 후가 37.94±7.33으로 유의하게 높았다($t=-6.274, p<.001$). 간호 대학생들의 건강상태는 임상실습 전이 3.62±0.94로 유의하게 높았으며($t=3.346, p=.001$), 임상실습 스트레스 정도도 임상실습 전이 63.17±15.07로 유의하게 높았고($t=3.158, p=.002$), 삶의 질도 임상실습 전이 91.71±12.72로 유의하게 높았다($t=5.578, p<.001$). (Table 3)

3.4 간호 대학생들의 임상실습 전·후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상관관계

간호 대학생들의 임상실습 전·후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의 상관관계를 비모수로 검증한 결과 다음과 같았다. 임상실습 전·후의 삶의 질과 임상실습 전 자기 효능 감($r=.148, p=.018$)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임상실습 전 삶의 질과 임상실습 전 우울($r=.275, p=.002$), 임상실습 전 자기 존중 감($r=.246, p<.001$), 임상실습 전 자기 효능 감($r=.177, p=.004$), 임상실습 전 학과 만족도($r=.263, p<.001$), 임상실습 후 삶의 질($r=.380, p<.001$), 임상실습 후 우울($r=.231, p<.001$), 임상실습 후 자기 존중 감($r=.278, p<.001$), 임상실습 후 자기 효능 감($r=.307, p<.001$), 임상실습 후 학과 만족도($r=.198, p=.001$), 임상실습 후 건강상태($r=.534, p<.001$)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임상실습 후 삶의 질과 임상실습 후 우울($r=.386, p<.001$), 임상실습 후 자기 존중 감($r=.704, p<.001$), 임상실습 후 자기 효능 감($r=.621, p<.001$), 임상실습 전 학과 만족도($r=.391, p<.001$), 임상실습 후 학과 만족도($r=.433, p<.001$), 임상실습 후 건강상태($r=.454, p<.001$)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음주량($r=-.170, p=.007$)과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Table 4).

Table 4. Correlation of Factors Affecting the Quality of Life before and after Clinical Practice of Nursing Students (n=256)

Variables	QOL	PEQL	PED	PES	PEE	POQL	POD	POS	POE	PESN	POSN	POH	DRK	RFA
QOL	1													
PEQL	-.050 (.427)	1												
PED	.023 (.804)	.275** (.002)	1											
PES	.074 (.240)	.246** ($<.001$)	.290** (.001)	1										
PEE	.148* (.018)	.177** (.004)	.281** (.002)	.743** ($<.001$)	1									
POQL	.012 (.856)	.380** ($<.001$)	.419** ($<.001$)	.585** ($<.001$)	.463** ($<.001$)	1								
POD	-.026 (.683)	.231** ($<.001$)	.626** ($<.001$)	.173** (.006)	.160* (.011)	.386** ($<.001$)	1							
POS	.089 (.160)	.278** ($<.001$)	.325** ($<.001$)	.732** ($<.001$)	.610** ($<.001$)	.704** ($<.001$)	.215** (.001)	1						
POE	.112 (.075)	.307** ($<.001$)	.276** (.002)	.657** ($<.001$)	.663** ($<.001$)	.621** ($<.001$)	.211** (.001)	.747** ($<.001$)	1					
PESN	.109 (.084)	.263** ($<.001$)	.557** ($<.001$)	.377** ($<.001$)	.327** ($<.001$)	.391** ($<.001$)	.357** ($<.001$)	.363** ($<.001$)	.374** ($<.001$)	1				
POSN	.024 (.700)	.198** (.001)	.459** ($<.001$)	.339** ($<.001$)	.336** ($<.001$)	.433** ($<.001$)	.517** ($<.001$)	.355** ($<.001$)	.422** ($<.001$)	.606** ($<.001$)	1			
POH	.000 (.998)	.534** ($<.001$)	.302** (.001)	.160* (.010)	.082 (.192)	.454** ($<.001$)	.311** ($<.001$)	.217** ($<.001$)	.243** ($<.001$)	.237** ($<.001$)	.263** ($<.001$)	1		
DRK	.005 (.933)	-.001 (.986)	-.302** (.001)	-.169** (.007)	-.219** ($<.001$)	-.170** (.007)	-.064 (.309)	-.153* (.015)	-.289** ($<.001$)	-.305** ($<.001$)	-.246** ($<.001$)	-.014 (.829)	1	
RFA	.018 (.778)	-.073 (.244)	-.007 (.943)	-.092 (.141)	-.080 (.201)	-.034 (.593)	-.048 (.446)	-.050 (.426)	-.116 (.063)	-.172** (.006)	-.141* (.024)	-.002 (.973)	.146* (.020)	1

* : $p<0.05$, ** : $p<0.01$

Quality of Life; QOL, Pre-quality of Life; PEQL, Pre-depression; PED, Pre Self-esteem; PES, Pre Self-efficacy; PEE, Post-quality of Life; POQL; Post-depression; POD, Post Self-esteem; POS, Post Self-efficacy; POE, Pre-satisfaction of Nursing Department; PESN, Post-satisfaction of Nursing Department; POSN, Post-overall Health; POH, Drinking; DRK, Reason for Application; RFA

Table 5-1. Factors Affecting the Quality of Life before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n=256)

Independent Variables	B	S.E	β	t	Sig.	Tolerance	VIF
Constants	95.208	9.407		10.121	<.001**		
Sex	1.040	1.476	.030	.705	.482	.875	1.143
Age	-1.604	1.182	-.056	-1.357	.176	.927	1.078
Monthly Income	1.139	.404	.121	2.820	.005**	.868	1.152
Drinking	.512	.708	.030	.723	.470	.915	1.093
Reason for Application	.364	.139	.159	2.624	.009**	.437	2.286
School Record	.331	.600	.025	.550	.583	.807	1.239

F=31.672(p<.001), R²=.659(Adj R²=.638)

* : p<0.05, ** : p<0.01

Table 5-2. Factors Affecting the Quality of Life after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n=256)

Independent Variables	B	S.E	β	t	Sig.	Tolerance	VIF
Constants	48.012	9.626		4.988	<.001**		
Monthly Income	.918	.422	.093	2.175	.031*	.879	1.138
Drinking	.741	.731	.042	1.014	.312	.948	1.055
Reason for Application	.126	.397	.013	.317	.752	.963	1.038
School Record	-.361	.635	-.025	-.569	.570	.800	1.250
Post-Satisfaction of Nuring Department	.327	.157	.135	2.081	.039*	.381	2.624

F=31.597(p<.001), R²=.660(Adj R²=.639)

* : p<0.05, ** : p<0.01

Table 5-3. Factors Affecting the Quality of Life before and after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n=256)

Independent Variables	B	S.E	β	t	Sig.	Tolerance	VIF
Constants	140.031	17.329		8.081	<.001**		
Monthly Income	2.378	.703	.133	3.383	.001**	.946	1.058
Drinking	.719	1.257	.022	.572	.568	.956	1.046
Reason for Application	.609	.116	.313	5.268	<.001**	.415	2.410
School Record	2.982	.625	.204	4.771	<.001**	.798	1.253
Satisfaction of Nuring Department	2.784	.833	.152	3.344	.001**	.706	1.417
Depression	-.689	.150	-.363	-4.600	<.001**	.235	4.261

F=52.065(p<.001), R²=.685(Adj R²=.672)

* : p<0.05, ** : p<0.01

3.5 간호 대학생들의 임상실습 전·후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임상실습 전의 간호 대학생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변수 선택방법을 입력으로 선택하고, 성별, 연령, 월 소득, 음주량, 지원동기, 성적, 임상실습 전 학과 만족도, 임상실습 전 건강 상태, 임상실습 전 실습주수, 임상실습 전 스트레스, 임상실습 전 실습스트레스, 임상실습 전 자기 존중 감, 임상실습 전 자기 효능 감을 독립변수로 임상실습 전 삶의 질을 종속 변수로 회귀모형을 생성하였다. 회귀식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는 F 통계량은 31.672이고, 유의확률 $p<.001$ 로 유의하므로 회귀 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회귀모형은 적합하였다. 회귀계수는 임상실습 전 삶의 질= 95.208 + 1.040(성별) - 1.604(나이) + 1.139(월 소득) + 0.512(음주량) + 0.364(지원동기) + 0.331(성적)으로 설

명된다. 본 연구 대상자의 임상실습 전 삶의 질에 유의한 설명력을 갖는 요인은 월 소득($t=2.820, p=.005$)과 지원동기($t=2.624, p=.009$)로 간호 대학생들의 임상실습 전 삶의 질에 대한 이들 요인의 결정계수인 R 제곱은 .659로 65.9%의 설명력을 보여준다.(Table 5-1). 다중 공선성의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공차한계와 분산팽창인자(VIF)를 확인한 결과 공차한계는 모두 0.1 이상이고, 분산팽창인자(VIF)도 10미만이므로 다중 공선성이 높은 변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잔차의 독립성을 검증한 결과 Durbin-Watson 값이 2.157로 2와 가까워 자기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임상실습 후의 간호 대학생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변수 선택방법을 입력으로 선택하고, 월 소득, 음주량, 지원동기, 성적, 임상실습 후 학과 만족도, 임상실습 후 실습만족도, 임상실습 후 건강

상태, 임상실습 후 실습 주수, 임상실습 후 우울, 임상실습 후 스트레스, 임상실습 후 임상실습 스트레스, 임상실습 후 자기 존중 감, 임상실습 후 자기 효능 감을 독립변수로 임상실습 후 삶의 질을 종속변수로 회귀모형을 생성하였다. 회귀식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하는 F 통계량은 31.597이고, 유의확률 $p < .001$ 로 유의하므로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회귀모형은 적합하였다. 회귀계수는 임상실습 후 삶의 질 = $48.012 + 0.918(\text{월 소득}) + 0.741(\text{음주량}) + 0.126(\text{지원동기}) - 0.361(\text{성적}) + 0.327(\text{임상실습 후 학과 만족도})$ 로 설명된다. 본 연구 대상자의 임상실습 후 삶의 질에 유의한 설명력을 갖는 요인은 월 소득($t=2.175, p=.031$)과 임상실습 후 학과 만족도($t=2.081, p=.039$)로 간호 대학생들의 임상실습 후 삶의 질에 대한 이들 요인의 결정계수인 R 제곱은 .660로 66.0%의 설명력을 보여준다.(Table 5-2). 다중 공선성의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공차한계와 분산팽창인자(VIF)를 확인한 결과 공차한계는 모두 0.1 이상이고, 분산팽창인자(VIF)도 10미만이므로 다중 공선성이 높은 변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잔차의 독립성을 검증한 결과 Durbin-Watson 값이 2.078로 2와 가까워 자기 상관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임상실습 전·후의 간호 대학생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변수 선택방법을 입력으로 선택하고, 월 소득, 음주량, 지원동기, 성적, 학과 만족도, 건강 상태, 우울, 스트레스, 자기 존중 감을 독립변수로 삶의 질을 종속변수로 회귀모형을 생성하였다. 회귀식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하는 F 통계량은 52.065이고, 유의확률 $p < .001$ 로 유의하므로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회귀모형은 적합하였다. 회귀계수는 삶의 질 = $140.031 + 2.378(\text{월 소득}) + 0.719(\text{음주량}) + 0.609(\text{지원동기}) + 2.982(\text{성적}) + 2.784(\text{학과 만족도}) - 0.689(\text{우울})$ 로 설명된다. 본 연구 대상자의 임상실습 전·후의 삶의 질에 유의한 설명력을 갖는 요인은 월 소득($t=3.383, p=.001$), 지원 동기($t=5.268, p<.001$), 성적($t=4.771, p=.001$), 학과 만족도($t=3.344, p=.001$), 우울($t=-4.600, p<.001$)로 간호 대학생들의 삶의 질에 대한 이들 요인의 결정계수인 R 제곱은 .685로 68.5%의 설명력을 보여준다.(Table 5-3). 다중 공선성의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공차한계와 분산팽창인자(VIF)를 확인한 결과 공차한계는 모두 0.1 이상이고, 분산팽창인자(VIF)도 10미만이므로 다중 공선성이 높은 변수는 없는 것

로 확인되었다. 또한 잔 차의 독립성을 검증한 결과 Durbin-Watson 값이 2.010으로 2와 가까워 자기 상관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고찰

본 연구를 통하여 간호 대학생들의 임상실습 전·후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학생 중 여학생이 많았고, 연령 분포는 20~29세가 가장 많았고, 학년별 분포는 3학년이 많았다. 간호 대학생들의 병역 의무는 군필자가 많았고, 종교를 안 가진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월 소득은 한 달에 201~300만원이 가장 많았으며, 음주량은 술을 전혀 하지 않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간호 대학생들의 학과 지원 동기는 ‘적성과 흥미가 맞아서’, ‘부모님 혹은 교사의 권유로’, ‘취업률이 높아서’, ‘전문직이라서’, ‘기타’, ‘성적을 고려해서’의 순이었다. 성적 분포는 ‘중위권(평균 B)’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중하위권(평균 C)’이 많았다. 실습주수는 임상실습 전에는 ‘참여 안함’이 많았고, 임상실습 후에는 2~4주가 많았다. 이는 전공 선택 동기가 ‘적성 및 흥미’가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박보영, 심옥수 [6]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또한 대상자 중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가장 많았고, 이전 학기 성적이 ‘중’이라고 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는 김명숙, 노기옥, 김선호 [12]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본 연구에서 간호 대학생들의 성별과 학업 성적이 임상실습 전·후의 삶의 질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성별이 삶의 질에 유의하게 차이를 보였다는 박보영, 심옥수 [6]의 연구결과와 성별에 따른 삶의 질에서 남녀 간에 차이를 보인다는 최명심, 손정락 [18]의 연구결과와도 유사하다. 본 연구에서 남성이, 성적이 좋을수록 삶의 질이 높았다. 이는 남성중에서 군필자가 많았고, 군필자들은 군 경험을 통해 사회생활에 성실하고 긍정적인 면이 작용하였고, 남성이 여성보다 활동적 [19]이라,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짐작된다. 또한 간호 대학생들은 성적이 좋은 경우, 학과 만족도가 높고, 학과 만족도가 높은 경우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추측되고, 이는 김명숙, 노기옥, 김선호 [12]의 연구결과와도 유사하였다.

본 연구에서 간호 대학생들의 임상실습 전·후 학과 만족도, 임상실습 전·후 임상실습 만족도, 임상실습 전·후

건강상태, 임상실습 전·후 우울, 임상실습 전·후 스트레스 정도, 임상실습 전·후 임상실습 스트레스 정도, 임상실습 전·후 자기 존중 감, 임상실습 전·후 자기 효능감은 간호 대학생들의 삶의 질과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다. 또한 간호 대학생들의 임상실습 전·후의 간호학과 만족도, 임상실습 만족도, 건강상태, 우울, 스트레스 정도, 임상실습 스트레스 정도, 자기 존중 감, 자기 효능 감, 삶의 질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다음과 같았다. 간호 대학생들의 건강상태와 임상실습 스트레스 정도, 삶의 질은 임상실습 전이 유의하게 높았고, 간호학과 만족도와 임상실습 만족도, 스트레스 정도는 임상실습 후가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건강상태에 따라 삶의 질이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다는 박보영, 심옥수 [6]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또한 지각된 건강상태가 ‘ 좋음 ’이라고 응답한 대상자의 자아존중감과 삶의 질이 높았고, 전공만족에 대해 ‘만족’이라고 응답한 대상자의 자아존중감과 삶의 질이 가장 좋은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김명숙, 노기옥, 김선호 [12]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이는 간호 대학생들의 간호학 관련 만족도와 임상실습 만족도가 삶의 질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는 이명숙, 김금순, 조미경, 안정원, 김순오 [3]의 연구결과와도 유사하였다. 이런 결과로 임상실습 후에 스트레스 정도가 높아, 건강상태와 삶의 질이 떨어짐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임상실습 전에 임상실습 스트레스 정도가 높았던 것은 참여 대상자가 3학년이 많았고, 3학년들은 아직 실습을 경험해 보지 않아, 확실하지 않은 불안이 가중되어 나타난 결과로 보여 진다. 또한 임상실습 후에 간호학과 만족도와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았던 것은 병원별 오리엔테이션, 과목별 오리엔테이션과 임상실습 전체 오리엔테이션 등을 통해 알게 된 정보들이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어 나타난 결과라 사료된다. 이를 통해 임상실습이 간호 대학생들에게 스트레스와 우울을 유발하고, 건강상태와 삶의 질을 저하시킴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학과 만족도, 임상실습 만족도, 건강상태, 자기 존중감과 자기 효능 감을 증진시키는 프로그램이 임상실습을 경험하게 될 3, 4학년 간호 대학생들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간호 대학생들의 임상실습 전·후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의 상관관계를 비모수로 검증한 결과 다음과 같았다. 임상실습 전·후의 삶의 질과 임상실습 전 자기 효능감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

며, 임상실습 전 자기 효능감이 높을수록 임상실습 전·후의 삶의 질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또한 임상실습 전 삶의 질과 임상실습 전·후 우울, 임상실습 전·후 자기 존중 감, 임상실습 전·후 자기 효능 감, 임상실습 전·후 학과 만족도, 임상실습 후 삶의 질, 임상실습 후 건강상태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따라서 임상실습 전·후 우울, 임상실습 전·후 자기 존중 감, 임상실습 전·후 자기 효능 감, 임상실습 전·후 학과 만족도, 임상실습 후 삶의 질, 임상실습 후 건강상태가 높을수록 임상실습 전 삶의 질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임상실습 후 삶의 질과 임상실습 전·후 학과 만족도, 임상실습 후 우울, 임상실습 후 자기 존중 감, 임상실습 후 자기 효능 감, 임상실습 후 건강상태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음주량과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따라서 임상실습 전·후 학과 만족도, 임상실습 후 우울, 임상실습 후 자기 존중 감, 임상실습 후 자기 효능 감, 임상실습 후 건강상태가 높을수록 음주량이 적을수록 임상실습 후 삶의 질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는 건강상태와 삶의 질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박보영, 심옥수 [6]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며, 자아 존중감 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질이 상승되는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는 김명숙, 노기옥, 김선호 [12]의 연구결과와도 유사하였다. 또한 홍은영, 이은희, 김근면, 전은주, 박빈희 [10]의 연구에서는 자기 효능 감, 자기 존중감과 건강관련 삶의 질이 양(+)의 상관관계가 있고, 자기 효능감과 자기 존중감이 삶의 질에 외생변수로 작용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결과와도 유사하였다. 그러나 우울할수록 삶의 질이 떨어진다는 연구결과 [20]와는 상반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는 임상실습 전·후에 임상실습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게 됨으로써 우울의 정도는 높으나, 그러한 결과로 임상실습에 많은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상대적으로 임상실습 만족도는 향상되어 삶의 질에 높아진 것이라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임상실습 전·후의 간호 대학생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변수 선택방법을 입력으로 선택하고, 성별, 연령, 월 소득, 음주량, 지원동기, 성적, 임상실습 전·후 학과 만족도, 임상실습 전·후 건강 상태, 임상실습 전·후 실습주수, 임상실습 전·후 스트레스, 임상실습 전·후 임상실습 스트레스, 임상실습 전·후 자기 존중 감, 임상실습 전·후 자기 효능 감을 독립변수로 임상실습 전·후 삶의 질을 종속변수로 회귀모형을 생성하였다. 간호 대학생들의 임상실습 전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월 소득과 지원 동기로 나타났다. 이들 변수들은 임상실습 전 삶의 질을 65.9%로 설명하였으며, 월 소득, 지원 동기 순으로 영향을 미쳤다. 또한 간호 대학생들의 임상실습 후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월 소득과 임상실습 후 학과 만족도로 나타났다. 이들 변수들은 임상실습 후 삶의 질을 66.0%로 설명하였으며, 월 소득, 임상실습 후 학과 만족도 순으로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간호 대학생들의 임상실습 전·후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월 소득, 지원 동기, 성적, 학과 만족도, 우울로 나타났다. 이들 변수들은 삶의 질을 68.5%로 설명하였으며, 지원동기, 성적, 우울, 월 소득, 학과 만족도 순으로 영향을 미쳤다. 이는 백선숙, 조주연 [7]의 연구에서 우울 정도가 삶의 질을 설명하는 주요 변수로 설명되었던 것과 유사하며, 낮은 경제 상태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명숙, 김금순, 조미경, 안정원, 김순오 [3]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또한 간호학 공부를 지원하게 된 동기와 간호학 공부에 대한 만족에 따라 삶의 만족도에 차이가 있었다는 김순희, 김동희, 손현미 [13]의 연구결과와도 유사하였다. 따라서 임상실습을 경험하는 3, 4학년들은 월 소득이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았고, 적성이 맞아 간호학과를 선택한 경우에 삶의 질이 높았으며, 성적이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았고, 학과 만족도가 높은 경우에 삶의 질이 높았으며, 우울 정도가 낮을수록 삶의 질이 높았음을 확인하였다. 이런 결과로 적성이 맞아 간호학과를 선택함으로써 학과 만족도도 높고 성적도 일정하게 유지하였으며, 경제적인 어려움이 적고, 우울하지 않으며 자신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간호 대학생들의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유추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 대학생들의 임상실습 전·후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임상실습 전·후의 간호 대학생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변수 선택 방법을 입력으로 선택하고, 성별, 연령, 월 소득, 음주량, 지원동기, 성적, 임상실습 전·후 학과 만족도, 임상실습 전·후 건강 상태, 임상실습 전·후 실습주수, 임상실습 전·후 스트레스,

임상실습 전·후 임상실습 스트레스, 임상실습 전·후 자기 존중 감, 임상실습 전·후 자기 효능 감을 독립변수로 임상실습 전·후 삶의 질을 종속변수로 회귀모형을 생성하였다. 그 결과로 간호 대학생들의 임상실습 전·후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월 소득, 지원 동기, 성적, 학과 만족도, 우울로 나타났다. 이들 변수들이 삶의 질을 68.5%로 설명하였으며, 지원동기, 성적, 우울, 월 소득, 학과 만족도 순으로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를 근거로 다음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자기 보고 형 설문지를 척도로 사용하여 결과가 편향이 있을 수 있으며, 일부 지역의 간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일반화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둘째, 간호 대학생들의 지원동기와 월 소득은 통제할 수는 없으므로 통제 가능한 성적과 학과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우울을 감소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킬 프로그램을 모색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Reference

- [1] H. S. Park, Y. J. Bae, S. Y. Jung, A Study on self-esteem, self-efficacy, coping methods, and the academic and job-seeking stress of nursing students, *J Korean Academic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ing*, 11, (4), 621-631, 2002.
- [2] Y. K. Yang, K. S. Han, M. H. Bae, S. H. Yang, Social support, academic stress, clinical practice stress in college students of nursing, *The Korean Journal of Stress Research*, 22, (1), 23-33, 2014.
- [3] M. S. Lee, K. S. Kim, M. K. Cho, J. W. Ahn, S. N. Kim, Study of stress, health promotion behavior, and quality of life of nursing students in clinical practice and factors associated with their quality of life, *J Muscle Jt Health*, 21, (2), 125-134, 2014.
DOI: <https://dx.doi.org/10.5953/JMJH.2014.21.2.125>
- [4] G. H. Kim, K. H. Kim, The effect of therapeutic recreation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quality of life in nursing students, *J Korean Academic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ing*, 17, (4), 431-439, 2008.
- [5] M. Y. Park, S. Y. Kim, A qualitative study of nursing students' first clinical experience,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6, (1), 23-35, 2000.
- [6] B. Y. Park, O. S. Shim, Predictors of quality of life in nursing students and general college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6, (11), 811-830, 2016.
DOI: <https://dx.doi.org/10.22251/jlcci.2016.16.11.811>
- [7] S. S. Baek, J. Y. Cho, The influence of life stress, depression, smart-phone addiction on quality of life among college students, *Korea Academy 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8, (8), 248-256, 2017.
DOI: <https://doi.org/10.5762/KAIS.2017.18.8.248>

- [8] U. C. Kim, Y. S. Park, Factors influencing the quality of life for Korean adolescents and adults at home, school, work and leisure setting: indigenous psychological analysis,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9, (4), 973-1002, 2004.
- [9] M. B. Frisch, Quality of life therapy-applying life satisfaction approach to positive psychology and cognitive therapy, 21-43, Sigma Press, 2017.
- [10] E. Y. Hong, E. H. Lee, G. M. Kim, E. J. Jeon, B. H. Park, Structured model on the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in university students focused on personal competency health care, *The Korean Journal of Rehabilitation Nursing*, 20, (2), 129-139, 2017.
DOI: <https://doi.org/10.7587/kjrehn.2017.20.2.129>
- [11] S. L. Kim, J. E. Lee, Relationship among stress, coping strategies, and self-esteem in nursing students taking clinical experience,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1, (1), 98-106, 2005.
- [12] M. S. Kim, G. O. Noh, S. H. Kim, A study on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between perceived stress and QOL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9, (4), 2233-2245, 2017.
- [13] S. H. Kim, D. H. Kim, H. M. Son, Comparison of attitudes of nursing students toward death, self-esteem and life satisfaction according to clinical experience, *Korean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14, (3), 144-151, 2011.
- [14] S. K. Min, K. I. Kim, I. H. Park, Guideline for development of Korean version of WHO quality of life scale abbreviated version(WHOQOL-BREF), Seoul: Hana, 2002.
- [15] S. M. Kim, T. Y. Hwang, Comparison of stress levels arising in clinical settings, stress coping mechanisms and clinical competency between male and female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 (4), 606-616, 2014.
- [16] Rogenberg M, Society and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5.
- [17] Chen G, Gully MS, Eden D, Validation of a new general self-efficacy scale. *Organizational Research Methods*, 4, (1), 62-83, 2001.
- [18] M. S. Choi, C. N. Son, Exploration study for development of the scale with undergraduate students' subjective quality of life,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12, (2), 289-305, 2007.
- [19] J. A. Lee, H. S. Lee, A Study on quality of life among college students in Korea,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Health Education*, 15, (2), 105-117, 1998.
- [20] Y. K. Kim, S. K. Kwon, H. G. Son, The influence of perceived stress, depression, and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on quality of life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20, (3), 1579-1593, 2018.

김 경 아(Kyeong-Ah Kim)

[정회원]



- 1992년 8월 : 부산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간호학석사)
- 2014년 2월 : 가톨릭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간호학박사)
- 1998년 9월 ~ 2012년 2월 : 경북전문대학 간호학과 조교수
- 2012년 3월 ~ 현재 : 혜전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기본간호학, 성인간호학, 노인간호학